“놀이터 우리가 디자인 했어요”

■ 광주 문흥동 문산 어린이 놀이터 모형 발표회

북구 문화의집, 토공 지원받아 리모델링

초등생들 친환경 설계…12월 말에 개장

“우리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를 직접 디자인했어요. 나무 그루터기 위에 아기자기한 놀이 기구를 만들거예요.”(문산초교 6학년 고운창군)

“놀이터는 노인들도 많이 가는데, 가파른 경사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천세영 문흥동 주민자치위원장)

27일 오전 10시 문산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문산어린이놀이터 모형발표 및 주민공청회’. 이 학교 6학년3반 어린이 32명과 문흥동 주민 20여 명이 마을 놀이터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지를 놓고 자못 진지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날 주민공청회는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의 디자인을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토공이 2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와 북구문화의 집, 전남대조경설계연구실이 학교 앞 문산어린이 놀이터(600㎡)의 낡은 시설을 친환경 놀이공간으로 꾸미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최초로 수요자인 어린이들이 직접 디자인했고, 이날 주민공청회를 통해 설계안을 발표한 것이다.

어린이들은 놀이터의 디자인 컨셉트를 자연과 스토리텔링이 조화를 이룬 ‘기적의 나무와 놀이 숲’으로 정했다. 아이들이 만든 스토리텔링은 기존의 놀이터에 있던 수령 150년의 당산나무(느티나무)가 외롭지 않게 어린 왕자가 작은 씨앗을 뿌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들은 놀이터 중앙에 ‘나이테 광장’(높이 1.2m·넓이 113㎡)으로 이름 붙인 나무 그루터기 모형을 만든 뒤 그 위에 놀이 시설을 설치하는 디자인을 제안했다. 놀이 시설에도 문어 형상의 밧줄타기 기구, 새싹을 닮은 의자, 안에 들어가 소리를 쳐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수집통 등 아이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 엄마와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놀이터 주변에 작은 산책로를 포함시켰다.

아이들은 그동안 매주 목요일 3교시 수업시간에 전남대조경설계연구실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 관련 기초공부와 자신들이 원하는 공간을 토론을 통해 정했다.

민효정양은 “처음에는 의견이 다른 아이들과 말다툼도 많았다”면서 “우리가 꾸민 놀이터가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공간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마음을 터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아이들이 공개한 디자인에 대해 주민들은 따뜻한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한 주민은 “나이테 광장이 높아 위험 요소가 많아 보완이 됐으면 한다”면서 “어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적의 나무와 놀이 숲’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디자인을 토대로 오는 11월 초순 공사에 들어가 12월 말에 문을 열 계획이다.

한편 토공은 지난 2006년부터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중금속 오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놀이터 30여 개소를 새단장했다. 올해는 광주, 춘천, 당진 등지의 5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7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문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문산어린이놀이터 모형 발표 및 주민공청회’에서 이 학교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놀이터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화가 하철경 서울전

29~11월4일 갤러리 이즈

‘군막동 일기’

남종 산수화의 맥을 잇고 있는 한국화가 하철경(호남대 미술학과 교수)씨가 29~11월4일까지 서울 갤러리 이즈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하씨는 이번 전시에서 수원성, 격포 등지의 풍경과 향일암, 월정사 등 고즈넉한 산사의 모습을 화폭에 옮긴 신작을 전시한다.

현대적인 감성이 가미된 새로운 산수화의 길을 열어 주목받고 있는 그는 담묵으로 처리하면서도 힘차고 생동감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송광사의 봄’은 사물들 사이의 원근감을 무시해 산과 나무, 꽃 등이 한데 어우러진 산사의 아름다움을 선사해 준다. 또 ‘초여름 날에’는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작은 집을 안고 있는 고향 마을의 아늑함을 표현했다. 그는 특히 먹선으로 사물의 형상을 묘사한 뒤 채색을 하지 않는 백묘화법을 추구한다.

미술평론가 안영길(단국대 조형예술학과 교수) “기존의 전통 산수화에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던 백묘화법을 재발견해 전통과 현대가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 되살려냈다”고 평했다.

목포대학교 미술학과와 세종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하씨는 한국미협 이사장을 역임했다. 프랑스 파리 문화원, 뉴욕 퀸즈미술관, 독일 쾨테연구소 등에서 전시를 열었고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대상(1999년), 전라남도 문화상(1999) 등을 수상했다. 문의 02-736-666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연 예술제, 일단 명맥 유지

문진위 주최 내년 1월 이름 바꿔 개최

정체성 문제 논란 … 졸속 진행 우려도

지역의 유일한 국제 종합공연예술축제인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이하 공연예술제)가 일단 명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연예술제라는 이름 대신, 광주아시아공연예술제(가칭·이하 아시아예술제)라는 ‘단발성 행사’로 진행돼 정체성 부분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진위)는 27일 문진위 사무실에서 27차 회의를 열고 아시아예술제를 문진위가 주최하기로 의결했다. 아시아예술제는 오는 12월 30일 홍보 공연을 시작으로 2009년 1월5일부터 10일간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진위는 예산 집행권 등만 행사하고 프로그램 선정 등 실질적 운영은 ‘아시아예술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진행한다는 복안. 이날 회의에서는 오건탁 문진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만 광주시 부시장 등에게 추진위 구성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했다.

광주시와 문진위가 타이틀을 변경, 행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공연예술제라는 이름을 고집할 경우 조직위가 꾸려지지도 않은데다 이사회 의결 문제 등이 얽혀 있어 국비 사용 기간인 내년 2월까지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정부로 부터 지원받은 3억원의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데다 내년도 예산 확보도 불투명해 일단 ‘공연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지역 공연계 역시 국제 공연 행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명맥을 이어가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행사를 치르는 데만 급급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는 일단 내년 1월까지 행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회를 개편하는 등 공연예술제 관련 조직을 대폭 개선, 새판을 짠다는 복안이다.

지역 예술계 인사는 “일단 지역의 중요한 행사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예견된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예술인들과 시의 태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해금과 클래식 기타의 만남

황토제 공연 28일 5·18 문화회관

〈전미향 대표〉

〈이왕재씨〉

해금과 클래식 기타의 만남, 북청 사자놀음의 흥을 돋우는 국악 타악기의 연주.

지난 1999년 창단후 전통음악의 맥을 이으면서 다양한 시도가 어우러진 국악 창작곡에 관심을 기울여온 국악 실내악단 황토제(대표 전미향)가 23번째 정기 공연 ‘바람이 전하는 말’을 마련했다. 28일 오후 7시30분 5·18기념문화회관

이번 무대에서는 특히 황토제가 공연을 위해 위촉한 곡인 흥겨운 북청사자놀음을 모티프로 한 ‘사자춤’과 박미영씨 작품으로 해금, 소금, 베이스 기타, 피아노가 어우러져 감성을 자극하는 ‘How Grateful I am’을 처음 연주한다.

또 대금과 소금이 어우러진 슬픈 계면조 왈츠풍의 ‘찬란한 날’, 클래식 기타와 해금이 만난 ‘바람이 전하는 말’, 범능 스님이 작곡한 ‘가을산’과 ‘꽃을 바치나이다’, 강렬한 비트와 현대적 선율의 신명이 숨어 있는 ‘ 空-놀이’ 등이 공연된다.

송선명·이왕재·오혁·김선임·김광숙·김한아·이정숙 등과 함께 사자춤의 정재일·김흥모씨, 보컬 장소영씨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문의 011-9212-54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교원 원격직무연수자 모집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교원 원격직무연수의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2차 연수 참가신청은 11월30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400명이다. 연수는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나 신문협회 원격연수 사이트(http : //kan.teacherville.co.kr)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는 1544-7783. /이은미기자 emlee@

영진위, 800억 영화펀드 조성

영화산업 활성화 대책

영화진흥위원회는 27일 800억원 규모의 영화 펀드를 새로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 영화산업 활성화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영진위는 600억원 규모의 중형 펀드와 50억원 규모의 다양성 펀드, 50억원 규모의 공동제작 펀드를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 조성할 예정이다. 영진위는 이미 올해 100억 규모의 투자조합에 출자한 바 있어 모두 8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게 됐다.

영진위는 “영화 산업의 불황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로 조성되는 펀드가 한국 영화의 적정 제작 편수를 확보하고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진위는 “펀드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조합 관리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의 편중이나 조합원 관계 회사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